

민선 8기 이상철 곡성군수, 새로운 100년 위한 청사진 제시

민선 8기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군정 목표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다.

민선 8기 군정 목표를 뒷받침할 6개의 군정 방침으로는 ▲매력있는 행복도시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감성 힐링 생태관광 ▲소득창출 미래농, ▲감동혁신 창의행정을 확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정 목표는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 상통한다.

다. 청년 시절부터 실천해 왔던 고향 사랑을 바탕으로 한 발짝 더 빠른 발걸음으로 곡성과 군민이 현재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첫째, 주민행복 분야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곡성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둘째, 복지 분야는 세대를 아우

르는 빈틈 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구석구석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실현할 계획이다.

셋째, 농업 및 경제 분야에는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20여 개 공약을 내걸었다.

넷째, 문화관광 분야는 관광지마다 문화적 감성을 덧입히고, 머무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형 생활 인구를 확충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감동, 혁신, 창의 행정을 약속했다. 군민의 삶 구석구석을

살뜰히 살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는 협치와 통합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상철 군수는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의 뜨거운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대민 친절과 의회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곡성군은 앞으로 공약 초안에 대한 타당성, 재원 계획 등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쳐 실현 가능성 높이고 견실하게 세부화해 최종 공약으로 확정하게 된다. /심선섭 기자

여수, 친환경농업 유용미생물 4종 공급 시 자체생산...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큰 효과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매년 친환경 농업인과 축산농가 등에 유용미생물(EM) 배양원액 80톤 가량을 공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농업인은 물론 희망하는 시민에게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해오고 있다.

유용미생물(EM)은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 유익한 균을 인공적으로 배양한 복합미생물이다.

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미생물은 ▲악취와 유해가스 제거, 착색과 당도 증가에 효과가 있는 광합성균 ▲유기물 분해 능력이 우수하고 유해균을 억제해 주는 고초균 ▲퇴비 부속 촉진 및 토양 산도 교정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토양 개량과 생장 물질을 분비하는 효모균 등 총 4종이다.

미생물은 보통 물에 100배~1천배

로 희석해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토양에 사용하면 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축사 등 악취 제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받길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여수시 주동1길 32) 유용미생물 배양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공급받은 미생물을 방치 또는 미사용하거나 판매 등 공익 목적에 적절치 않게 사용하는 경우 공급이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61-659-4481)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업 생산비 절감과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로 유용미생물을 신청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춰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구례군, 환경오염행위 단속

구례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인 7~8월에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배출업소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배출방지 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7월 초 사전홍보와 계도를 거쳐, 7~8월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시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심건식 기자



광양시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대처능력 향상과 화재 대응절차 숙지를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비대면 교육과 더불어 소규모 인원이 참가한 직접 훈련도 병행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시청사·의회청사 비대면 소방훈련

광양시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사고에 대한 직원들의 대처능력 향상과 화재 대응절차 숙지를 위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소방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소방훈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비대면 교육과 더불어 소규모 인원이 참가한 직접 훈련도 병행

했다.

동영상을 통한 교육은 화재 발생 시 상황전파와 119 신고, 피난 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소방설비 작동방법 안내 등 신속한 화재 대응절차 숙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동영상 교육과 함께 소규모 인원이 참가한 직접 훈련을 실시해 응급상황에 즉각적

인 대처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박봉열 회계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과 재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교육으로 대신했지만, 직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잊지 않도록 당부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순천시에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개소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협업으로 윈스톱 서비스

순천시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 전남 동부본부가 문을 열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은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중간 역할로 사회적기업 인증 컨설팅과 기업 실적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전남권역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은 올해부터 ▲(사)전라남도농촌종합지원센터(나주) ▲(사)상생나무(여수)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순천시 아랫장에 (사)전남농촌종합지원센터의 분점으로 동부본부를 개소했다.

이로써 순천과 전남동부권 사회적경제기업의 낮은 접근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사)전라남도농촌종합지원센터와 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상담·지원과 판로확대에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업무중복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협업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통합지원기관 동부본부가 신설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순천시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 판로확대·판촉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가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